

석사학위논문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오 현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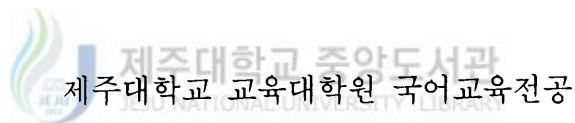
2001년 8월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연구

지도교수 최 규 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6월 일



제출자 오 현 숙

오현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7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초록>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연구

오 현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최 규 일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대에 따른 국어/언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언어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사상, 철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관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즉 언어관은 그 시대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지표로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언어관 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언어관에 관한 연구 업적과 국어교육에 관한 언어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언어관이란 언어를 보는 관점으로 언어 도구관, 언어 형성관, 언어 행동관, 이성적 언어관, 영물주의 언어관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들 언어관들이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관들이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1차와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과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 그리고 분석 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제3차 교육과정부터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과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제7차 교육과정까지 주된 언어관이 되고 있다. 이 중 국어과 교육과정의 핵심적 언어관은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으로 삼으면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적인 언어관은 최근에 와서 우리의 국어교육이 너무 기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국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관의 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이 '기능'을 중시 여기는 언어관이었다면 앞으로의 국어교육은 '기능'과 '사고'를 모두 다 중시 여기는 통합적 언어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국어'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일깨워 선인의 얼을 되새기고 '국어'를 아끼는 태도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고찰	3
II. 기존의 언어관 검토	6
1. 언어 도구관	6
2. 언어 형성관	8
3. 언어 행동관	9
4. 이성적 언어관	11
5. 영물주의 언어관	11
III.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13
1.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15
2.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27
3.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35
4.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40
5.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45
6.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49
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53
IV.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의 문제점과 지향점	59
V. 결 론	64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논문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언어관을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파악하며,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의 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국어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어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국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국어교육의 목표¹⁾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언어 활동과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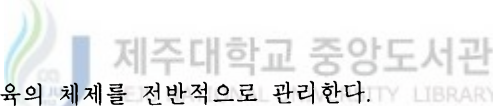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

1) 교육부(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통해 볼 때, 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어를 통하여 언어사용능력을 배우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국민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어교육의 본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국어과 교육과정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국어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모습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의 달성에 관계되는 제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과정 전체를 조절·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현섭 외(2000)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

- 
- ① 국어교육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 ② 국어 교수·학습 계획의 준거가 된다.
 - ③ 국어 교수·학습의 내용을 제공한다.
 - ④ 국어 교수·학습의 방법에 관한 제안이나 안내를 한다.
 - ⑤ 국어 교수·학습 평가의 기준과 원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그 시대의 상황이나 정책이 반영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시대에 따른 국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언어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사상, 철학, 언어에 관한 태도나 관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마련이다. 즉 그 시대의 언어관의 차이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 국어과 교육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다.

2) 최현섭 외 (2000),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p.74.

그리하여 제Ⅱ장에서는 기존의 언어관에 관한 연구 업적과 국어교육에 관한 언어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언어관들이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기까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을 고찰한 후, 제Ⅳ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국어교육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첫째, 제1차부터 현재 교육과정인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초·중·고 교육과정 중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그 동안 꽤 많이 연구되었고 또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국어과 고유의 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비슷한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2. 선행 연구 고찰

이제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대다수의 연구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사적 흐름³⁾에 초점을 맞추고 그 변천을 보여주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준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1996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은 이러한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총정리하여

3) 이용백(1989), 「속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배의자(1974),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병완(1985),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홍옥표(1985), “국어과 교육과정의 사적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병호(1986), “국어과 교육 변천사 연구-광복 후의 국민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학 전공 박사 학위 논문.

김철수(1989),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보여주고 있는데,⁴⁾ 국어과 교육과정을 태동기, 신생기, 발전기, 성숙기로 시기 구분을 하여 각 시대의 시대배경과 교육이념, 교과내용 고찰,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어문정책 등을 그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신동로(2000)⁵⁾도 교육과정과 교육평가를 다루면서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최현섭 외(2000)⁶⁾도 '국어교육사'부분에서 광복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광복 이후 현재 제7차 교육과정까지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김재복(2000)⁷⁾은 통합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연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국어과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언어와 문학을 통합 교육과정 통합'이라 하여 통합적 언어 교수법과 아동 문학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 활동을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언어의 관점과 연관지어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대행(2000)⁸⁾을 들 수 있다. 김대행은 언어의 양면성인 도구성과 문화성의 두 가지 성격을 말하면서 언어는 어느 한 가지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도구성과 문화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어과 교육의 기본 목표인 '언어사용기능의 신장'과 관련하여 '사용'의 개념을 단순히 도구의 개념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되며⁹⁾ 가치창조적인 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언어는 화자, 청자, 지시대상 그리고 언어기호라는 구조요소의 결합으로 이

4) 1996년에 나온 책으로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변천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김재복(2000)의 <통합교육과정>은 1990년대 이후 강조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다루고 있다.

5) 신동로(200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p.81.

6) 최현섭 외(2000), 전제서, p.142.

7)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p.222.

8) 김대행(2000),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9) 상계서, p.26.

국어를 이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과 손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언어의 사용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도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손가락과 동일하지만 손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경우는 이 이용이 끝난 뒤에도 손가락은 여전히 손가락인 채로 있지만 언어의 경우는 언어표현이라는 실체가 생성되고 창조된다는 점이 다르다.

루어지는 총체이지 단순히 언어 기호 자체로 국한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김승호(1994)¹⁰⁾는 국어교육 연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어교육의 이론화라고 얘기하면서 국어교육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국어교육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적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철학 중의 하나는 올바른 언어관의 정립으로 보면서 기존의 사용 또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을 비판하고 국어교육이 자리해야 할 새로운 언어관으로 '사고'로서의 언어와 '세계'로서의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도영(1992)¹¹⁾도 국어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언어관의 확립이라고 말하면서 언어관의 설정 없이는 올바른 국어교육을 생각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 아래 기존의 여러 가지 언어관을 검토한 후 국어교육에서 필요한 언어관으로 '언어의 총체적 이해'와 '언어사용 관련 요소들의 상호 작용성'을 제안하면서 이들이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통합적 교육과정의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든가 언어관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등 많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까지 연구된 언어관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토대로 하여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교육과정에 어떠한 언어관이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어떠한 언어관의 바탕 위에 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언어관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이끌어 가는 지표가 된다. 따라서 이렇게 연구된 결과는 앞으로 우리의 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10) 김승호(1994), "여러 가지 언어관에 비추어 본 국어교육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1) 이도영(1992),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국어교육에의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Ⅱ. 기존의 언어관 검토

언어관이란 언어를 보는 관점을 말한다. 즉 언어 사상, 언어 철학, 언어에 관한 태도, 관점으로서 언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언어관은 달라지게 마련이다¹²⁾. 즉 언어란 그 언어를 다루는 학자나 시대의 태도 그리고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어교육도 ‘언어’와 무관할 수 없으며 언어관에 따라 국어교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장에서는 언어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언어 도구관, 언어 형성관, 언어 행동관, 이성적 언어관, 영물주의 언어관¹³⁾으로 나누고 이들 언어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국어교육에서의 언어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언어 도구관

언어 도구관은 인간의 사고와 언어와의 관계에서 나온 개념으로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고 여기는 관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사고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언어를 보는 관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선 언어란 왜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언어를 의

12) 최규일(1999), “동양과 서양의 언어관 비교 연구(1)”,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13) 이도영(1992),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국어교육에의 적용 연구”, p.5.

이도영은 기존의 언어관을 언어도구관, 언어 형성관, 언어 행동관으로 나누어 기존의 언어관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여기에 이성적 언어관과 영물주의 언어관을 더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사전달 도구로 보는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우리는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한다. 즉 인간이 공동사회를 이루어 더불어 살 수 있게 된 것은 언어라는 도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도구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능적 효용이 강조될 때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도구성인데, 이 도구성은 바로 의사소통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관의 고전적인 예는 베이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은 있으나, 실물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의 내용과 실물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말의 우상이 자란다 하여, 시장의 우상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그 말이 오성에 관계하려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베이컨의 언어관은 언어가 사고의 도구이며 그것도 불충분한 도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사고의 도구로 간주하면 언어와 사고는 서로 다른 이원적 발생이고 언어는 사고의 뒤에 따르고 명확한 사고를 위한 언어의 기능은 항상 불충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 도구관은 언어와 인간 정신과의 관계는 원리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관점이다.

최규일(1999)¹⁴⁾도 중국의 <논어>, <맹자>, <노자>, <장자>에 나타난 언어관과 서양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관을 비교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언어관으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관도 언어 도구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도구관을 국어교육과 관련지어 얘기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김대행을 들 수 있는데 김대행은 '사용'으로서의 언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사용'의 의미를 단순히 도구의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사용'이라는 개념에는 도구의 이용이라는 의미와 함께 실천이나 실행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해와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언어관이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축소시킨

14) 최규일(1999), 전계서.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서 국어교육에서의 도구적 언어관을 비판하고 있다.

김승호(1992)도 김대행과 의견을 같이하여 '사용'으로서의 언어 즉 도구적 언어관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언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고'로서의 언어와 '세계'로서의 언어를 국어교육의 대안적 언어관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언어 형성관

언어 형성관이란 언어가 인간의 사고(사상), 사회, 문화 등을 형성한다는 언어관이다. 이 입장은 언어를 도구로 보는 입장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서 사고보다 언어를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언어관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사람은 훔볼트(Humboldt)인데 그가 말하는 언어는 음성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내적 형식인 것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언어에는 각각 그 나름의 고유한 세계관이 내재해 있고 개개의 음성이 대상과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언어는 인간과 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자연 사이에 나타난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계관에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훔볼트의 언어관은 후에 사피어·워프(Sapir & Whorf)의 언어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르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세계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서로 상이한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언어는 사고를 형성하는 것이며 모든 인식은 언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언어 형성관은 최규일(1999)에서 얘기하는 동양의 대표적인 언어관인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관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언어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수단으로 보는 언어관이며 이처럼 언어를 인간의 도덕적 수양에 연결시키는 언어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에 대한 관점이나 사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⁵⁾

언어 형성관을 국어교육과 관련지어 얘기한 대표적인 논자는 김수업¹⁶⁾이다. 그에 따르면 말이란 정신 생활의 집이요, 공동생활의 핏줄이고, 개인이건 집단이건 주고받는 말의 정도와 수준만큼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국어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정신 곧 '얼'로서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언어 형성관은 주로 언어를 과소 평가하는 언어 도구관의 입장에 반대하여 언어가 작용하는 힘, 즉 말의 힘에 기반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에 대한 지나친 과대 평가는 언어 절대주의 언어 지상주의에 빠져, 모든 문제를 언어에서 찾고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는 '언어의 도구적 성격과 형성적 기능'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한쪽만의 강조는 불균형을 초래하여 올바른 국어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언어 행동관

앞에서 설명한 언어 도구관과 언어 형성관은 주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언어 행동관은 언어를 하나의 행동, 행위로 보는 관점이다.

이처럼 언어를 행위로 보는 관점은 근대 언어학의 선구자인 소쉬르(Saussure)에

15) 최규일(1999), 전계서, p.83.

覺者何 覺也者覺其非也 覺其非奈何 于雅言覺之爾(丁若鏞, 雅言覺非)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릇된 점을 깨달음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른 말에서 그것을 깨달아야 할 뿐이다.)

俗語近于市 織語近于娼 謹語近于優 士大夫·涉 于此 損威重(申欽, 象村集)

(속된 말은 장사처에 가깝고, 가냘프고 아름다운 말은 창녀에 가깝고, 희롱하는 말은 광대에 가깝다. 사대부가 이런 말에 간섭하면 위엄을 손상하게 된다.)

16) 김수업(1989), 「국어교육의 원리」, 청하.

서부터인데 소쉬르는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랑그(langue)와 개인적인 빠롤(parole)을 구분하고 언어학의 대상으로 랑그에 우위성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언어(langue)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 활동(language)'을 끌어 들였을 뿐이지, '언어 활동' 자체에 큰 비중을 둔 것은 아니었다.

미국 구조주의의 선구자인 블룸필드(Bloomfield)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자극-반응'을 도입하여 언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언어를 인간 행동의 특수한 형태로서 이해하고 자극과 반응의 내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에 따르면 언어란 다른 사람이 자극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이 반응을 야기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자극-반응' 중심의 언어 행동관은 어떤 자극에 대하여 항상 그 반응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서 동물의 언어에는 그러한 관점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에는 적용되기 힘든 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촘스키(Chomsky)도 언어능력과 언어수행을 구별하면서 언어수행은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언어능력의 구체적인 표현 또는 실현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도 언어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언어수행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화용론에서는 언어 행위를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첫째는 화자의 입을 통해 어떤 '말'이 흘러 나왔을 것이며, 둘째는 화자가 그 말로 나타내고자 한 뜻이 있을 것이며, 셋째는 그 말이 청자에게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화용론에서는 하나의 발화(utterance)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 청자의 반응까지도 고려함으로써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어 행동관은 국어교육의 기능교과적인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기호를 사용하는 기능 또는 행동의 적부(適否)와 효율성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능을 국어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언어관은 언어를 자족적인 기호의 체계로 다루는 관점보다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4. 이성적 언어관

이성적 언어관은 최규일(1999)에서 제시된 서양의 대표적인 언어관으로 언어를 하나의 규범이요, 생활 원칙으로써 언어의 구조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철저히 해부하여 분석하려고 하는 언어관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 이에 해당하며 도구로서의 언어가 가능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다.

이러한 언어관은 고대 서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근대에 이르러 언어과학이 발달하면서 더욱 발전을 보게 된다. 즉 언어를 자족적인 기호의 체계로 보면서 철저히 분석하여 그 규칙을 발견하는 이성적 언어관은 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여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어학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어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국어과의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어와 언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갖추어졌을 때 올바른 국어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5. 영물주의 언어관

영물주의 언어관은 언어 신성관이라고도 하는데 언어에 신비로운 힘(영혼)이 있다고 보는 언어관이다. 이것도 동양과 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¹⁷⁾할 수 있는 언어관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언어가 주술적 매체로서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 즉 고대인들은 언어를 통하여 초월적 존재인 신에게 소망을 빌고 영적 존재(신)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고자 하는 주술적 성격을 지녀왔다.

17) 최규일(1999), 전제서, p.80.

이러한 언어관은 <삼국유사>에서 용천사가 향가를 지어 부르니 하늘의 별 변괴가 사라진 예라든가 <삼국지> '魏志 東夷傳'에 나오는 '구지가'를 통해 볼 때 우리 나라에도 예로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관은 고대인들의 언어관으로서 이러한 영물주의 언어관은 우리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상으로 기존에 검토되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관의 의미와 특성을 살펴 보면서 국어교육과의 관련성까지 검토해 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에 관한 관점이 국어교육에 모두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언어관들이 국어과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제1차부터 제7차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국어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을 나누는 시기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이는 국어 교과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시기 구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학자들의 교육과정의 시기 구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함종규의 견해¹⁸⁾

- (1) 미군정하의 교육과정 (1945~1948)
- (2) 민국 수립 후의 교육과정 (1948~)
 - ① 초창기의 교육과정 (1948~1963)
 - ② 1차 개정의 교육과정 (1963~1969)
 - ③ 2차 개정의 교육과정 (1969~1973)
 - ④ 3차 개정의 교육과정 (1973~)

나. 김종서의 견해¹⁹⁾

- (1) 교수 요목 강조의 시기(1945~1954)
- (2)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1954~1963)
- (3) 생활 중심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 (1963~1973)
- (4) 학문 중심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 (1973~)

18) 함종규(1980),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전·후편」, 숙명여대 출판부.

19) 김종서(1983), 「교육과정과 수업」, 배영사, p.26.

다. 광병선의 견해²⁰⁾

- (1) 군정기의 교육과정 (1945~1955)
- (2)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1955~)
 - ① 1차 개편의 교육과정 (1955~1962)
 - ② 2차 개편의 교육과정 (1963~1972)
 - ③ 3차 개편의 교육과정 (1973~1981)
 - ④ 4차 개편의 교육과정 (1982~)

라. 홍용선의 견해²¹⁾

- (1) 교수 요목 시대 (1945~1955)
- (2) 교과 과정 시대 (1955~1963)
- (3) 교육과정 시대 (1963~)
 - ① 경험 중심 교육과정(1963~1973)
 - ② 학문 중심 교육과정(1973~)

마. 정준섭의 견해²²⁾

- (1) 태동기 - 교수요목기 (1945~1955)
- (2) 신생기 - 제 1, 2, 3차 교육과정기(1955~1981)
- (3) 발전기 - 제 4, 5차 교육과정기(1981~1992)
- (4) 성숙기 - 제 6차 교육과정기 (1992~)

이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명칭이나 그 성격을 중심으로 하느냐, 시대나 시기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느냐에 따라 조금씩 용어의 사용이 달라지고는 있으나 그 교육과정을 나누는 시기의 구분은 그대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20) 광병선(1983), 「교육과정」, 배영사, p.150.

21) 홍용선(1992), 「교육과정 신강」, 문음사 p.65.

22) 정준섭(1996),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다. 교육과정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문제는 학자에 따라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제1차에서 7차까지의 각 시기별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광복 전의 교육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구한말이나 일제침략기에는 각종 학교 관제나 시행령의 교수 요지에 지나지 않으며 미군정기의 교육과정도 시대적 상황이 매우 복잡다단하고 갈등과 혼란, 그리고 불안정한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래도 체계를 갖추고 처음으로 교육과정이란 용어를 사용한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앞 장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언어관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1955년 8월 10일에 '교과 과정'이란 명칭을 띠고 처음 발표된 교육과정이 시행된 시기를 가리킨다.

정부수립 후 처음 제정한 이 교육과정은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영향을 받아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도 생활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시하여 도구로서의 언어 기능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까지의 읽기 위주의 독해 학습에서 벗어나 말하기 위주의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기본 방향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태도, 기능 및 능력을 길러 가면서 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감상력'을 기르는데 두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제1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언어관은 ‘언어 형성관인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이다. 제1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도 목표 부분을 보면 국어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언어의 기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 언어는 인간의 사회 생활을 통하여 서로 교섭하고 결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이다. (**사회 형성 기능**)
2. 언어는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언어 예술로서의 언어는 우리들의 인간성을 형성하며 국민적인 사상 감정을 도야하는 것이다. (**인간 형성 기능**)
3. 언어는 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모든 학문이나 기술이 언어로서 표현되고 전달 계승되는 것이다. (**문화 전달 기능**)

이 내용을 볼 때, 이 시기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인을 형성하고,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어 문화를 계승 전달한다는 관점으로 언어를 보면서 언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를 올바른 인격 형성과 사회인 형성의 수단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를 윤리·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언어 형성관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를 제시하고 난 후 국어교육이 전체의 교육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교육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1.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2. 자주적 생활 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3.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규정해 놓아 확실하게 언어를 인격형성의 수단, 즉 윤리·도덕적 수단으

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나타난 언어관은 의사소통수단으로 보는 언어 도구관이다.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부분을 보면 국어 교육의 목표를 진술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나라의 교육목적과 국어 교육’이라 하여 중학교의 국어 교육이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 다음으로 ‘국어과 지도 목표’라 하여 영역별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우리 나라의 교육목적과 국어교육’의 구성

-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제1항 <언어교육>

(나) ‘국어과의 지도 목표’의 구성

언어의 기능 세 가지를 이용하여 ‘사회 형성을 위하여, 인간 형성을 위하여, 문화 전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하며 국어 학습 지도의 목표라 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짓기), 읽기 등 네 영역별로 2, 3개항씩 제시하고 있다.

- 말하기
 1.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2. 자기가 한 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3.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 듣기
 1.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2. 남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 쓰기(짓기)

1.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분명하고 바르고 알기 쉽게 쓸 수 있다.
2. 읽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글을 쓴다.
3. 개성적인 글을 쓸 수 있다.

○ 읽기

1. 글을 읽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읽을 수 있다.
2.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3. 문장을 빨리 읽고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다.

위의 목표 부분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이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생활 경험을 중시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도록 하는 것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여 국어교육의 기본 방향을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 태도, 기능 및 능력을 길러 가면서 국어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감상력'을 기르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을 보면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국어과의 지도내용'이라 하여 지도 요소와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고 '각 학년의 지도내용'에는 영역별, 학년별 지도내용을 나타내었다.

(가) 교과지도 내용 -중학교 국어과의 지도내용

기초적인 언어 능력, 언어 사용의 기술,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의 큰 세 가지 영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

① 기초적인 언어 능력

- 언어의 소재면-발음, 문자, 어휘, 어법, 문학(지도내용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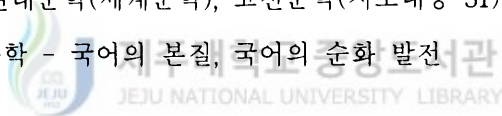
- 언어의 운용면-말하는 힘, 듣는 힘, 쓰는 힘, 읽는 힘, 감상하는 힘(지도 내용 34)

② 언어사용의 기술

- 말하기, 듣기를 주로 하는 기술-발표, 전달, 인사, 소개, 문답, 회의, 좌담, 방송, 전화, 연극, 영화(지도내용 24)
- 쓰기를 주로 하는 기술-기록, 노트, 문자언어에 의한 발표 및 전달, 편지, 일기, 서식, 편집(지도내용 28)
- 읽기를 주로 하는 기술-신문, 잡지, 편지, 규약, 게시, 공고, 독서, 사전, 참고서, 도서관의 이용(지도내용 20)

③ 언어 문화의 체험과 창조

- 문학·예술 -시가류, 소설류, 일기, 전기, 기록, 수필류, 논설류, 희곡, 극영화, 현대문학(세계문학), 고전문학(지도내용 31)
- 언어 과학 - 국어의 본질, 국어의 순화 발전



(나) 각 학년의 지도내용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국어과 4대 영역에 따라 학년별로 나타내었고 언어 과학이라 하여 공통지도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자 및 한자론 학습도 지도요령과 학년별 지도내용을 적어 놓고 있다.

<말 하기>

• 제 1학년

- ① 우리말의 발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
- ② 공대말, 속어(俗語), 비어(卑語)를 구별하여 쓸 수 있다.
- ③ 말버릇의 결점을 고치도록 한다.
- ④ 예절을 지키어 상대나 경우에 맞도록 이야기한다.
- ⑤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골라서 쓴다.
- ⑥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조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 ⑦ 여러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⑧ 몸짓이나 말소리에 변화가 있도록 한다.
- ⑨ 인사나 소개를 바르게 할 수 있다.
- ⑩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한 바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 ⑪ 좌담회에 참가한다.
- ⑫ 문학 작품을 감명 깊게 낭독할 수 있다.
- ⑬ 확성기를 사용하여 자기의 목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연구를 한다.

• 제 2학년

- ① 일상 생활에 표준말을 사용한다.
- ② 좋은 말씨로 이야기한다.
- ③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 화법을 달리한다.
- ④ 근거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한다.
- ⑤ 배워 안 말을 씌으로써 한층 더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 ⑥ 자기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 ⑦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한 바를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 ⑧ 말소리의 가락이나 속도가 그 경우에 맞는가를 생각한다.
- ⑨ 특별한 목적-전달, 허가, 사용 등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는다.
- ⑩ 회의에 나가 요령 있게 발언할 수 있다.
- ⑪ 전화나 메가폰을 사용할 때, 될수록 요령 있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제 3학년

- ① 바른 액센트가 무엇인가를 안다.
- ② 어법을 이해하여 일상의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한다.
- ③ 자기의 말을 반성하면서 이야기해 나갈 수 있다.
- ④ 유모를 섞어서 이야기를 한다.
- ⑤ 자기가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는 어휘를 늘이도록 한다.
- ⑥ 논리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
- ⑦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건, 연설을 할 수 있다.
- ⑧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이야기를 꼭 맞도록 이야기하게 된다.

- ⑨ 몸짓이나 표정과 말소리가 일치한 자연스러운 화법에 익숙해진다.
- ⑩ 공식(公式)인사를 할 수 있고,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다.
- ⑪ 특정한 제목을 중심으로 하여 토론을 한다.
- ⑫ 회의나 좌담의 사회(司會)를 잘 하고, 의견을 종합할 수 있다.
- ⑬ 연극을 할 때, 동작이나 표정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듣기>

• 제 1 학년

- 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고, 잘 들어주는 태도를 갖는다.
- ② 남의 이야기를 바르게 듣는다.
- ③ 자기가 말할 때와 자기가 들어야 할 때와의 구별을 안다.
- ④ 다른 사람의 물음에 대하여 상냥하고 명확하게 응답할 수 있다.
- ⑤ 전달이나 용건을 확실히 알아 듣는다.
- ⑥ 발표나 보고의 내용을 빠짐 없이 듣는다.
- ⑦ 30분 가량 계속하는 긴 이야기나 강연을 끝까지 듣는다.
- ⑧ 즐거운 담론(談論)에 참가한다.
- ⑨ 문학 작품의 낭독을 듣고 감동을 받는다.
- ⑩ 보도 방송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
- ⑪ 뉴스 영화, 문화 영화 등을 보고 여가를 즐긴다.

• 제 2 학년

- ① 남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듣는다.
- ② 중심 사상이나 주안점과 부분적인 설명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③ 말소리의 가락, 높이, 속도 등을 주의하여 듣는다.
- ④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응대한다.
- ⑤ 전달, 지시 등을 정확하게 메모하여 두는 버릇을 기른다.
- ⑥ 보고(報告)나 설명 등을 조목별로 적어서 정리한다.
- ⑦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듣는다.
- ⑧ 회의나 토의에 나가서 전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 ⑨ 인생이나 사상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⑩ 낭독법이 그 글의 내용에 적합한가를 생각한다.

⑪ 라디오를 계획적으로 듣는다.

⑫ 극이나 영화를 바르게 볼 수 있다.

• 제 3 학년

① 개성적인 말의 뉘앙스를 안다.

②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는다.

③ 상대방의 몸짓, 표정 등에 주의하여 이야기를 듣는다.

④ 상대방의 마음을 끌도록 정답게 말하는 태도를 갖는다

⑤ 복잡한 실무상의 용건을 틀림없이 듣는다.

⑥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과를 비교 반성하여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⑦ 요점(要點)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⑧ 모호한 표현이나 주지(主旨)에 맞지 않는 말을 지적한다.

⑨ 회의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의 다름을 잘 알게 된다.

⑩ 연설을 듣고 이해한다.

⑪ 방송 프로그램의 선택 편성에 대하여 생각한다.

⑫ 영화나 극이 좋고 나쁨에 대하여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쓰기 (글짓기)>

• 제 1학년

① 글을 쓰는 필요와 가치를 알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한다.

② 자기가 쓴 글을 더 정확하게 다듬어 가는 버릇을 붙인다.

③ 글의 단락이 잘 지어져 있나를 생각한다.

④ 글씨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쓴다.

⑤ 노트를 요령 있게 사용한다.

⑥ 메모를 적어 두는 습관을 기른다.

⑦ 회의의 경과를 기록하는 기회를 갖는다.

⑧ 생각한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글로 나타내어 본다.

⑨ 체험한 것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적는다.

- ⑩ 설명문을 쓴다.
- ⑪ 필요한 경우에 친척이나 친구에게 펜으로 편지를 쓴다.
- ⑫ 생활 일기, 학습 일기, 관찰 일기, 학급 일기 등을 쓰는 습관을 붙인다.
- ⑬ 결석 신고나 원서 따위를 자기 손으로 쓴다.
- ⑭ 개인이나 그룹 학급의 문집을 만든다.

• 제 2학년

- ① 자기의 생각을 알기 쉽게 글로 나타낼 수 있다.
- ② 표기법에 맞는 정확한 글을 쓴다.
- ③ 여러 가지 문장 기호를 바르게 쓸 수 있다.
- ④ 글씨를 아름답게 쓴다.
- ⑤ 연구나 조사를 잘 기록할 수 있다.
- ⑥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요점(要點)을 적어 둘 수 있다.
- ⑦ 보고문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 ⑧ 게시판에 게시나 고시(告示)를 잘 쓰게 된다.
- ⑨ 표어나 포스타 등을 효과적으로 쓰는 연구를 한다.
- ⑩ 사교적인 각종의 편지를 쓰게 된다.
- ⑪ 여러 가지 경우의 전보문 쓰는 법을 안다.
- ⑫ 카드, 서류 등에 바르게 써 넣는 습관을 기른다.
- ⑬ 필요한 기사를 모아 두는 스크랩북을 만든다.
- ⑭ 학급 신문을 편집한다.
- ⑮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시를 짓는다.
- ⑯ 간단한 창작을 할 수 있다.

• 제 3학년

- ① 개성적인 글을 쓰게 된다.
- ② 종이의 이용, 용구의 이용, 글씨의 배정 등 효과적인 표현법을 연구한다.
- ③ 문법에 주의하여 교정(校正), 정정(訂正), 가필(加筆) 등을 한다.
- ④ 철필, 모필 등을 실용에 적응하여 효과적으로 쓰게 한다.
- ⑤ 간단한 논문을 쓸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논문으로 쓴다.
- ⑥ 선전문이나 광고문을 써 본다.

- ⑦ 주문, 재촉, 문의 등 실용적인 편지 쓰는 법에 익숙해진다.
- ⑧ 이력서, 신고서, 증서 등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쓰는데 익숙해진다.
- ⑨ 어떠한 조직의 규약(規約)을 만들어 본다.
- ⑩ 신문 잡지 등의 편집에 대하여, 일반적이나 이해를 가지게 한다.
- ⑪ 학교 신문을 편집한다.
- ⑫ 창작에 흥미를 가지고 개성적인 글을 쓴다.
- ⑬ 회곡이나 시나리오를 써 본다.

<읽기>

• 제 1 학년

- ①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묵독(默讀)을 할 수 있다.
- ② 문의(文意)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③ 신문이나 잡지를 흥미를 가지고 읽는다.
- ④ 여가를 즐기어 독서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른다.
- ⑤ 양서(良書)를 선택하여 읽는다.
- ⑥ 국어 사전의 사용에 익숙해진다.
- ⑦ 학급 문고 도서의 분류와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⑧ 편지를 읽고, 거기 쓰여진 용건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
- ⑨ 일기나, 전기(傳記), 기록 등을 바르게 읽는다.
- ⑩ 운문(韻文)의 리듬을 알게 된다.
- ⑪ 이야기나 소설의 줄거리를 바르게 잡는다.
- ⑫ 감상문(感想文)이나 기행문을 읽는데 흥미를 느낀다.
- ⑬ 회곡이나 시나리오를 읽는데 흥미를 느낀다.
- ⑭ 현대 문학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안다.

• 제 2 학년

- ① 똑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할 수 있다.
- ② 효과적인 문장 표현에 주의하여 읽는다.
- ③ 신문, 잡지 등의 중요한 기사를 찾아서 읽는다.
- ④ 독서를 통하여 자기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⑤ 도서 목록을 만들고, 이를 바르게 분류 정리할 수 있다.
- ⑥ 각종의 사전, 참고서, 연감, 도표 등을 활용한다.
- ⑦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경영에 대하여 안다.
- ⑧ 사교적인 편지를 읽고,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한다.
- ⑨ 감상문이나 수필 기행문을 읽고, 내용에 대하여 생각한다.
- ⑩ 시적 표현을 감상한다.
- ⑪ 긴 소설을 짧게 요약(要約)하여 본다.
- ⑫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읽고 이해한다.
- ⑬ 우리 나라 현대 문학의 대표적 작가 및 그의 작품에 대하여 연구한다.
- ⑭ 우리 나라의 고전 문학으로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안다.

• 제 3학년

- ①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 ② 신문이나 잡지에 나타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기사에 관심을 갖는다.
- ③ 계시, 광고 및 규약문 등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 ④ 독서 노트를 만들어 독후감을 기록한다.
- ⑤ 독서 안내, 서문, 목차, 색인, 도표 등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⑥ 한 가지 사전이나, 참고서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내용을 비교하여 생각한다.
- ⑦ 공공(公共) 도서관에서 독서하는 법과, 서적을 선택하는 태도 및 습관을 기른다.
- ⑧ 실용적인 편지를 읽고 용건을 바르게 처리한다.
- ⑨ 일기나 전기 등을 읽고, 그 배경이 되는 시대나 생활을 생각한다.
- ⑩ 우리 나라의 대표적 운문을 감상한다.
- ⑪ 이야기나 소설에 작자의 견해가 어떻게 나타났나를 생각하며 읽는다.
- ⑫ 수필을 읽고 붓가는 대로 쓴 심경을 알게 된다.
- ⑬ 논문을 읽고, 논리적인 짜임이나 논지의 전개를 생각한다.
- ⑭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연출에 대하여 연구한다.
- ⑮ 현대 문학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 ⑯ 널리 알려진 고전 작품을 읽는다.

⑰ 우리말로 번역된 세계의 뛰어난 문학 작품을 읽는다.

이상의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보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사용기능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어 언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여기는 언어 도구관이 국어과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에 따라 언어사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 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또 하나의 언어관은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언어관이다. 이는 국어과의 지도내용 중 마지막 항목으로 ‘언어 과학’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L) 언어 과학

1. 국어의 본질

○ 우리말의 발음, 문자, 단어, 문법 등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한다.

2. 국어의 순화, 발전

○ 우리 국어의 장점과 단점을 안다.

○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 장차 우리 국어를 어떻게 순화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한다.

이는 앞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언어를 철저한 분석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언어관의 반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도목표’ 부분에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 파악하는 언어 형성관’이 ‘지도목표’와 ‘지도내용’에는 언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파악하는 언어 도구관’이, 그리고 ‘지도내용’의 한 항목으로 설정된 ‘언어과학’ 부분에는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언어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지도내용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중심적인 언어관은 도구로서의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어가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좋은 습관과 태도, 기능을 기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해와 지식과 감상하는 힘을 증대하여 올바른 국어 생활에의 향상을 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국어 교육이 국어 지식을 부여함으로써 언어 기능과 감상, 창작의 힘을 기르려 한 데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2차 교육과정은 1963년에 개편되어 1969년에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즉 진보주의 교육사조의 영향하에서 언어 생활과 언어사용 기능을 강조한 제1차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제1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했던 생활 경험을 중시한 언어사용기능을 보다 강조하여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나타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도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별다른 차이 없이 마찬가지로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모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목표’와 ‘지도내용’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은 제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국어과의 목표’를 설명하는 항목에서 목표를 제시하기에 앞서 언어의 기능을 밝히면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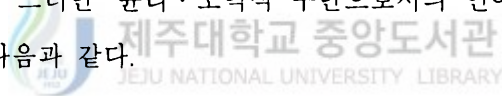
1. 언어는 인간의 사회 생활을 통하여 서로 교섭하고 결합하는 가장 기본이 되

는 수단이다. (사회 형성 기능)

2. 언어는 개인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언어 예술로서의 언어는 우리들의 인간성을 형성하며 국민적인 사상 감정을 도야하는 것이다. (인간 형성 기능)
3. 언어는 문화를 매개하는 것으로 모든 학문이나 기술이 언어로서 표현되고 전달 계승되는 것이다. (문화 전달 기능)

이는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어가 가정이나 사회 등 인간 생활에 있어서 매우 깊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언어를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관은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에도 부분적으로 드러나는데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드러난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나타난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년 목표>

- 1학년
 - 예절을 지켜 상대가 알 수 있게 적절한 말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2학년
 -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도록 한다.
 - 양서를 골라 널리 독서하는 데에 힘쓰도록 한다.
- 3학년
 - 항상 자기의 말을 반성해 가며 이야기하도록 한다.
 - 어휘를 늘이고 항상 친절하고 겸허한 태도로 말하는데 힘쓰도록 한다.
 - 독서에서 얻은 바를 살려서 자기 수양에 힘쓰도록 한다.

<지도 내용>

- 예절을 지키어 상대나 경우에 맞도록 이야기한다.

- 좋은 말씨로 말한다.
- 남의 이야기를 좋은 태도로 바르게 듣는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은 확실하게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언어관은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이다. 이것도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과 마찬가지로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던 언어관으로 국어과의 목표를 진술하는 부분과 학년목표를 제시하는 부분, 그리고 지도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국어과의 목표’, ‘학년목표’, ‘지도내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국어과의 목표>

- 말하기
 -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 자기가 한 말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 듣 기
 - 남의 이야기를 듣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 남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다.
- 읽 기
 - 글을 읽는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 문장을 빨리 읽고 많은 글을 읽을 수 있다.
- 쓰 기

- 자기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분명하고 바르고 알기 쉽게 쓸 수 있다.
- 읽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글을 쓴다.
- 개성적인 글을 쓸 수 있다.

<학년 목표> 각 학년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됨



• 제 1학년

영역	학년 목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버릇의 결점을 고쳐서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줄 알도록 한다. ○ 공대말, 속어, 비어를 구별하여 쓸 줄 알도록 한다. ○ 전화나 확성기를 사용하여 알맞는 자기 목소리로 쓸 줄 알도록 한다. ○ 예절을 지켜 상대가 알 수 있게 적절한 말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몸짓이나 말소리의 변화를 두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사나 소개를 바르게 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좌담회에 참가하여 건설적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 즐겨 문학 작품을 낭독하도록 한다. ○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 조리 있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자기 말의 단점을 스스로 고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데 힘쓰도록 한다.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이나 용건, 발표나 보고를 확실하게 들을 줄 알도록 한다. ○ 자기가 말할 때와 자기가 들어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알도록 한다. ○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과 견출 줄 알도록 한다. ○ 보고나 방송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나 몸짓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 ○ 회의에 참가하여 전체의 경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남의 이야기에 호응해 가며 흥미를 돋우게 하도록 한다. ○ 즐거운 분위기로 담론에 참가하도록 한다. ○ 30분 가량 계속되는 강연이나 긴 이야기를 듣고 하도록 한다. ○ 여러 가지 경우에 남의 의견을 잘 듣고, 그 요점을 잡기에 힘쓰도록 한다.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묵독할 줄 알도록 한다. ○ 현대 문학의 종류를 알고 운문의 리듬을 알도록 한다. ○ 문의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도록 한다. ○ 국어 사전의 사용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급 문고를 이용하고 도서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일기, 전기, 기록 등을 바르게 읽고, 내용을 분명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야기나 소설의 단락을 알고, 줄거리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신문이나 잡지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며, 여가를 즐겨 독서하도록 한다. ○ 흥미를 느끼며 회곡, 시나리오, 감상문, 기행문을 읽도록 한다. ○ 독서할 때는 의식적으로 양서를 선택하도록 한다. ○ 널리 서적을 구하여 읽고, 읽은 감명을 살리기에 힘쓰도록 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단락 지을 줄 알며 글의 필요와 가치를 알도록 한다. ○ 결석 신고, 여러 가지 원서 등을 쓸 줄 알도록 한다. ○ 생각한 것, 경험한 것을 거침없이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행사나 회의의 경과는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이나 그루우프 및 학급 문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자기가 쓴 글을 항상 정확하게 다듬도록 한다. ○ 메모를 적어 두고, 여러 가지 일기를 써서 활용하도록 한다. ○ 자기 글씨의 버릇을 알고 이를 고칠 줄 알도록 한다. ○ 펜으로 글씨를 바르고 빠르게 쓸 수 있도록 한다. ○ 노트를 요령 있게 깨끗이 사용하도록 한다. ○ 격식에 맞춰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데 힘쓰도록 한다.

• 제 2학년

영역	학년 목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리의 가락이나 속도를 경우에 맞출 줄 알도록 한다. ○ 회의에 나아가서 요령 있게 발언하며, 간단한 보고, 방송을 할 줄 알도록 한다. ○ 전화나 메가폰을 요령 있게 쓸 줄 알도록 한다. ○ 근거가 분명하고 책임 있는 말을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한 목적(전달, 허가, 사용 등)을 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한 바를 요령 있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상 생활에서 표준말을 쓰도록 한다. ○ 풍부한 화제로 여러 사람과 즐기도록 한다. ○ 메모에 의하여 요점을 빠지 않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 항상 품위 있는 말을 골라 쓰며 어휘를 풍부히 하기에 힘쓰도록 한다.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이야기를 비판하며 인생이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도록 한다. ○ 말소리의 가락, 높이, 속도 등이 알맞는가를 알도록 한다. ○ 중심 사상이나, 주안점과 부분적인 설명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라디오를 계획성 있게 듣고, 극이나 영화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회의나 토의에 나가서 전체의 분위기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달, 지시 등을 정확히 메모하도록 한다. ○ 보고나 설명 등을 종목별로 적어 정리하도록 한다. ○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도록 한다. ○ 항상 화제를 넓혀서 듣고 상대방의 뜻을 잡는 데 힘쓰도록 한다.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낭독할 줄 알도록 한다. ○ 우리 나라 현대 문학의 대표적 작가와 그 작품 및 고전 문학의 종류를 알도록 한다. ○ 신문 잡지의 중요한 기사를 찾아서 읽을 줄 알도록 한다. ○ 각종 사진, 참고서, 연감, 도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 도서관의 경영 방침을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교적인 편지, 감상문이나 수필, 기행문을 읽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시적 표현을 감상하고, 긴 소설을 짧게 요약할 수 있도록 한다. ○ 즐기는 시가나 구절을 암송하도록 한다. ○ 여러 가지 문장의 효과적인 표현 방법에 유의하도록 한다. ○ 필요한 서적의 부분을 골라서 발췌하도록 한다. ○ 양서를 골라 널리 독서하는 데에 힘쓰도록 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나 조사를 잘 기록할 줄 알도록 한다. ○ 표어, 포스터, 게시, 고시를 잘 쓸 줄 알도록 한다. ○ 표기법과 문장 기호를 바르게 써서 생각을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보고문, 각종 편지, 전문을 쓸 수 있도록 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형식으로 시를 쓰고, 간단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카아드, 서류 등을 바르게 써 넣도록 한다. ○ 스크랩 북을 만들어 필요한 기사를 모아두도록 한다. ○ 펜 글씨를 용지에 맞춰 아름답게 쓸 줄 알도록 한다. ○ 불러 주는 대문을 빨리 받아 쓸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알맞는 글씨를 쓰도록 한다.

• 제 3학년

영역	학년 목표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액센트와 어조로 이야기할 줄 알도록 한다. ○ 회의나 좌담의 사회를 할 줄 알고,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며, 의견을 종합할 줄 알도록 한다. ○ 논리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전개시킬 줄 알도록 한다. ○ 유모더어를 섞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이야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기 소개와 공식 인사를 격식에 맞춰 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극이나 말을 할 때는 표정과 말소리가 일치하여 자연스러운 화법에 익숙하도록 한다. ○ 항상 자기의 말을 반성해 가며 이야기하도록 한다. ○ 어법을 이해하여 일상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 ○ 어휘를 늘리고 항상 친절하고 겸허한 태도로 말하는데 힘쓰도록 한다.
듣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을 이해하며 개성적인 말의 뉴안스를 알도록 한다. ○ 모호한 표현이나 주제에 맞지 않는 말을 지적할 줄 알도록 한다. ○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을 줄 알도록 한다. ○ 복잡한 실무상의 용건을 틀림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을 할 줄 알고 영화나 극을 비평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의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한다. ○ 요점을 생각하면서 들어, 요지를 빨리 파악하도록 한다. ○ 아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고, 들은 것을 효과적으로 재생하도록 한다. ○ 한 사람의 이야기나 여러 사람의 이야기의 요지를 잡기에 힘쓰도록 한다.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비판적으로 읽을 줄 알도록 한다. ○ 번역된 세계 명작,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고전 작품을 읽으며, 현대 문학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한다. ○ 한 가지 사전이나, 도서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사하여 내용을 비교할 줄 알도록 한다. ○ 독서 안내, 서문, 목차, 색인, 도표 등의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 도서관에서 독서하고, 서적을 선택하는 데에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용적인 편지의 내용을 알고, 일기나 전기 등을 읽어서 그 배경이 되는 시대나 생활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운문, 소설, 수필을 읽고 그 짜임과 전개를 알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회곡이나 시나리오를 간단히 각색하여, 초보적인 연출을 하도록 한다. ○ 독후감을 기록하여 독서 결과를 정리하도록 한다. ○ 글에 써어진 뜻을 항상 바로 잡고 감명된 표현을 파악하도록 한다. ○ 독서에서 얻은 바를 살려서 자기 수양에 힘쓰도록 한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에 주의하여 교정, 정정, 가필 등을 할 줄 알도록 한다. ○ 이력서, 신고서, 증서, 규약 등을 만들 줄 알도록 한다. ○ 창작에 흥미를 가지고 개성적인 글을 쓰며, 회곡이나 시나리오도 쓸 수 있도록 한다. ○ 주문, 재촉, 문의 등의 실용문과 선전 광고문, 논문 등을 익숙하게 쓸 수 있도록 한다. ○ 신문 잡지의 편집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고, 학교 신문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적에 맞는 글을 정해진 시간에 쓰도록 한다. ○ 자기가 쓴 글을 반성하고 음미하도록 한다. ○ 용구의 이용, 글씨의 배정 등 효과적인 표현법을 알도록 한다. ○ 철필, 모필 등으로 효과적인 글씨를 써서 실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여러 가지 서식의 내용을 틀린 글자 없이 쓰도록 한다. ○ 자기가 쓰는 글자나 글에 자기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게 힘쓰도록 한다.

<지도 내용> - 언어 운용 면

영역	학년목표
말하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절을 지키어 상대나 경우에 맞도록 이야기한다. ○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적당한 말을 골라서 좋은 말씨로 말한다. ○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여서, 조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 화제를 풍부하게 갖는다. ○ 여러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회의에 나가 의제에 맞도록 요령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 ○ 몸짓이나 말소리에 변화가 있도록 연구한다. ○ 말소리의 가락이나 속도가 그 경우에 잘 맞는가를 생각한다. ○ 배워 안 말을 씌으로써 한층 더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 말버릇의 결점을 고치도록 한다.
듣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이야기를 좋은 태도로 바르게 듣는다. ○ 중심 사상이나 주안점과 부분적인 설명과를 혼동하지 않는다. ○ 남의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듣는다. ○ 개성적인 말의ニュ앙스를 안다. ○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읽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고 정확하게 목독을 할 수 있다. ○ 문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 효과적인 문장 표현에 주의하여 읽는다. ○ 글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쓰는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쓰는 필요와 가치를 알고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한다. ○ 글씨를 바르고 깨끗하게 쓴다. ○ 자기의 생각을 알기 쉽게 글로 나타낼 수 있다. ○ 자기가 쓴 글을 목적에 맞도록 더 정확하게 다듬어 가는 버릇을 붙인다. ○ 글의 단락이 잘 이어져 주제로 통합되어 있나를 생각한다. ○ 용구의 이용, 글자의 배정 등 효과적인 표현법을 연구한다. ○ 창작에 흥미를 느끼어 개성적인 글을 쓰도록 한다. ○ 모필, 철필, 펜 등으로 효과적인 글씨를 써 실용에 적응하도록 한다. ○ 문법에 주의하여 교정, 정정, 가필 등을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국어과의 목표나 지도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로 나타난 언어관은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언어관이다. 마찬가지로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같이 '언어과학'이라는 항목으로 '지도내용'의

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과학>

① 국어의 본질

- 우리말의 발음, 문자, 어휘, 문법 등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한다.

② 국어의 순화 발전

- 우리 국어의 장점과 단점에 관심을 가진다.
-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 장차 우리 국어를 어떻게 순화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해한다.

이와 같이 언어를 체계적 분석대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언어관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기부터 현재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시기까지 꾸준히 국어과의 지도내용의 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된 언어관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제2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1차 교육과정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참신하고 새로운 맛은 별로 없으나 제1차 교육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체계를 바로잡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과정이다. 이 시기에 보여준 언어관은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과,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 그리고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언어관이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교육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3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1973년에 공포되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1968년 우리 나라 최초의 교육 지표라 할 수 있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교육사조의 변화로 구체적인 교육과정, 기본 원리와 기능을 중시하고 학문의 구조를 탐구, 발견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민교육헌장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기본 방향 하에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언어의 사용을 사고의 차원으로까지 올려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가치관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제재 선정의 기준】을 신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선정의 기준에 있는 새마을 운동의 전개, 유신 과업의 수행, 한국적 민주주의의 수립 등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역점 사업이 교육과정에 직접 나타나 있어 정부의 정책과제가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을 살펴보면 먼저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의 하나였던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언어사용을 통해서 사고 계발을 강조하는 언어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언어관은 언어사용기능을 강조하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이다. 그러나 이 언어관은 ‘목표’ 부분에서는 이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구로서의 언어관과 차이를 보이는데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단순히 언어사용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을 통하여 사고 계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일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언어의 사용에서 사고적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 (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사용의 기능을 신장하고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 (나)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 발전

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 (다) 국어를 통하여 바르게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힘과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길러,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건실한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 (라) 국어 존중의 뜻을 높이고,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

위의 목표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의 사용을 사고의 차원으로 한 단계 올려 강조하면서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도구로서의 언어관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에 가면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을 중시함으로써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같은 언어관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에 나타난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도구로서의 언어관을 살펴보자.



<학년 목표>

• 1학년

- (가) 말하기의 응용 기능을 발전시켜서 개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를 예절바른 태도로써 잘 할 수 있게 한다.
- (나) 듣기의 응용기능을 발전시켜서 개인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를 참여하여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써 잘 들을 수 있게 한다.
- (다) 읽기의 응용 기능을 발전시켜서 일상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의욕적인 태도로써 잘 읽을 수 있게 한다.
- (라) 쓰기의 응용 기능을 발전시켜서 일상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흥미를 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하고, 바른 글씨 쓰기를 익히게 한다.

• 2학년

- (가) 말하기의 응용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공적인 모임의 경우를 중심으

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를 성실한 태도로써 잘 할 수 있게 한다.

(나) 듣기의 응용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공적인 모임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에 참여하여,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게 한다.

(다) 읽기의 응용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논리적인 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비판적인 태도로써 잘 읽을 수 있게 한다.

(라) 쓰기의 응용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여, 논리적인 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주체적인 태도로써 잘 쓸 수 있게 하고, 바르고 깨끗한 글씨 쓰기를 잘 하게 한다.

• 제3학년

(가) 말하기의 창조적 기능을 길러서, 혼자말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를, 주체적인 태도로써 잘 할 수 있게 한다.

(나) 듣기의 효율적 기능을 길러서, 혼자말의 경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말하기에 참여하여, 비판적으로 잘 들을 수 있게 한다.

(다) 읽기의 효율적 기능을 길러서, 상상적인 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개방적인 심정으로 잘 읽을 수 있게 한다.

(라) 쓰기의 창조적 기능을 길러서, 상상적인 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형식의 글을, 개성을 살려 잘 쓸 수 있게 하고, 바르고 빠르고 깨끗한 글씨 쓰기를 익숙하게 하도록 한다.

<지도 내용> -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영역과 지도내용의 항목수만 제시함.

• 1학년

(가) 말하기 영역 지도내용 20개 항목

(나) 듣기 영역 15개 항목

(다) 읽기 영역 22개 항목

(라) 쓰기 영역 18개 항목

• 2학년

(가) 말하기 영역 지도내용 20개 항목

(나) 듣기 영역 지도내용 16개 항목

- (다) 읽기 영역 지도내용 25개 항목
- (라) 쓰기 영역 지도내용 21개 항목
 - 3학년
 - (가) 말하기 영역 지도내용 23개 항목
 - (나) 듣기 영역 지도내용 16개 항목
 - (다) 읽기 영역 지도내용 27개 항목
 - (라) 쓰기 영역 지도내용 23개 항목

위의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제1,2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 것으로 보아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이 가장 주된 언어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학년목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절바른 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등의 내용은 앞에서 나타났던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이 제1,2차에서처럼 '언어의 기능'이라 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목표나 지도내용을 진술하는 부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언어관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언어관은 이성적 언어관이다.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에 꾸준히 나타나는 언어관으로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제재선정의 기준】의 (19)번 항목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19) 국어과 특유의 지식 체계에 관한 제재
 - (가) 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언어와 국어의 개념 및 그 기능
 - 국어의 변천 개요
 - 국어의 특질

- 국어 존중의 뜻
- 한글의 제자 원리

이상에서 살펴본 제3차 교육과정은 민족 주체성 확립이라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언어사용을 사고 차원으로 올려 강조하는 언어관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언어관도 그 구체적인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에 가서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어 이 교육과정 시기의 가장 핵심적인 언어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 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은 【제재 선정의 기준】의 한 영역으로나마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은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기본정신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바탕에 깔려서 목표나 내용을 제시하는 항목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제1, 2차 교육과정에서의 미국 실용주의 교육과정의 모방에서 벗어나 서구의 본질적인 교육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통적 민족 교육도 되살려 한국 고유의 언어 교육과정을 이루어낸 국어교육의 정립기라고 할 수 있다.

4.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언어사용 신장에 두고 있었다. 이를 입증하는 단적인 증거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과 교육의 내용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로 구분한 점이다. 제4차 교육과정은 이렇게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국어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국어과 특성의 명료화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4차 국어과 교육

과정은 모든 교과를 통하여 공통으로 도달되는 목표를 포함하여 국어과 특성에 맞는 국어과 고유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잡다하게 제시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정선하여 대폭 간소화하였다.

- ① 언어 기능 신장 강화
- ② 문학 교육의 강화
- ③ 언어 교육의 체계화
- ④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

를 개정의 세부적인 구성방향으로 삼았다.

제3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제1, 2, 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일관되게 지향했던 강조점(언어 기능 교육)과 언어 기능 속에서 체계를 갖추지 않고 단편적,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언어 지식과 문학 교육 모두를 함께 포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세운 것이라 하겠다.

즉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던 지도 내용들을 표현·이해(언어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면서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배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 이해·표현 - 언어사용의 능력
- 언어 -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
- 문학 - 문학에 관한 기초적 지식

이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과목표 1항에서 알 수 있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이다. 교과목표와 그에 따른 학년목표, 그리고 지도내용을 통해 거기에 담겨있는 언어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교과 목표>

- 1)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른다.

<학년 목표>

영역	학년 목표
1학년	<p>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차례를 짜서 말하게 한다.</p> <p>나) 제시된 자료들이 타당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듣게 한다.</p> <p>다) 읽는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읽으며, 필요에 맞는 책을 선택하게 한다.</p> <p>라) 글의 구성 원리에 따라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한다.</p> <p>마)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p> <p>바)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즐겨 읽으며, 상상력을 기른다.</p>
2학년	<p>가) 논의가 바르게 진행되도록 주제와 발언 규칙에 맞게 말하게 한다.</p> <p>나)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바르고 그릇을 판단하며 듣게 한다.</p> <p>다) 글의 표현과 짜임을 바르게 이해하며, 교양에 필요한 책을 고루 읽게 한다.</p> <p>라)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분명히 표현하게 한다.</p> <p>마)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p> <p>바) 문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즐겨 읽으며, 문학 감상력과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p>
3학년	<p>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 최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합리적으로 말하게 한다.</p> <p>나) 여러 사람의 말이 합리적으로 종합되어 최선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지 판단하며 듣게 한다.</p> <p>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비판하며, 독서의 범위를 넓혀 가게 한다.</p> <p>라) 알맞은 글의 형식을 선택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한다.</p> <p>마) 국어의 특질과 여러 가지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p> <p>바) 문학 작품을 통하여 삶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자아를 인식하게 한다.</p>

<지도 내용> - 각 학년별로 표현·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세 항목 각각의 여섯 영역에 대해 지도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도구로서의 언어관이 반영된 표현·이해 영역의 중점적인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음성언어를 통한 언어기능은 집단적 말하기인 토의, 연설, 보고 등의 활동과 관련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말하기, 듣기 영역)
- 문자언어는 국민학교 단계에서보다 비중을 크게 두고 지도한다.(읽기, 쓰기 영역)
-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다양한 읽을거리를 읽는 능력,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글을 짓는 능력 등을 강조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의사소통수단, 즉 도구로서의 언어관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을 '표현·이해' 영역으로 설정하여 '국어사용의 기능'을 교과 목표와 학년목표, 그리고 지도내용에서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언어관은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다. 이러한 언어관은 이제까지 국어사용기능 영역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던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구성방향의 한 항목(언어교육의 체계화)으로 강조되고 '언어'영역으로 국어교육의 한 영역을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년목표와 지도내용에 제시된 분석대상으로서의 언어관의 모습을 살펴보자.

<학년 목표>

-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1학년)
- 국어의 여러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2학년)
- 국어의 특질과 여러 가지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3학년)

<지도 내용>

영역	지도 내용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성분을 안다. ○짜임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안다. ○품사의 뜻과 종류를 안다. ○음운 변화의 주요 규칙을 안다.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성분의 기능을 안다. ○체언과 조사의 기능을 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기능을 안다. ○음운 변화의 체계를 안다.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장의 여러 가지 호응 규칙을 안다. ○짜임에 따른 단어의 종류를 안다. ○여러 품사의 특성을 안다. ○음운 변화의 주요 원인을 안다.



이상의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기능 신장의 강화, 문학 교육의 강화, 언어 교육의 체계화, 가치관 교육의 내면화 등을 그 세부구성내용으로 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과 내용을 보여주는 교육과정이다.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이제까지 체계적이지 못했던 국어교육의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뚜렷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표현·이해’ 영역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통한 언어사용의 기능을 강조하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이, 그리고 ‘언어’ 영역에서는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어과의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나누어 놓은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감이 있다. 말과 글의 표현·이해는 국어 활동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학도 그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총론에서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부합하면서도 국어과 교육 고유의 성격과 목표를 포괄하는 방향에서 구성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론의 여러 역점 사항 중 국어과 교육과 관련되는 ① 성숙한 자아 의식, ② 자율적인 의사 결정, ③ 기본적인 학습 능력, ④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 ⑤ 독창적인 표현력, ⑥ 풍부한 정서를 갖춘 인간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국어과 교육 고유의 목표인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를 교육의 본체로 삼되, 학생들의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으며 언어사용의 결과보다는 언어사용의 과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어과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주체를 교사가 아닌 학생으로 삼았으며 국어과 교육의 과제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원리 또는 개념들을 주입식으로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하고, 보고하고, 탐색하고, 평가하고, 설득하되, 이를 통해 '자신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갖도록 하는데 두었다. 이는 국어과 교육을 학생들이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구로서의 언어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와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사소통수단, 즉 도구로서의 언어관의 모습을 찾아보자.

<교과 목표>

-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학년 목표>

영역	학년 목표
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태도로 분명하게 말하게 한다.(말하기) ○ 성실한 태도로 내용을 간추리며 듣게 한다.(듣기) ○ 여러 종류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며 즐겨 읽게 한다.(읽기) ○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쓰게 한다.(쓰기)
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자료를 찾아 차례를 짜서 내용을 조리있게 말하게 한다.(말하기) ○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고,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생각하며 듣게 한다.(듣기) ○ 글의 유형과 읽는 목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읽게 한다.(읽기) ○ 주제에 알맞은 소재를 찾고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쓰게 한다.(쓰기)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선정, 조직하여 말하게 한다.(말하기) ○ 내용을 분석, 종합하여 목적과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며 듣게 한다.(듣기) ○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추론하며 비판적으로 읽게 한다.(읽기) ○ 내용을 참신하고, 개성있게 표현하며 목적이나 대상에 알맞게 글을 쓰게 한다.(쓰기)



<지도 내용>

: 학년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지도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음.

• 1학년

- 말하기 영역 8개 항목
- 듣기 영역 7개 항목
- 읽기 영역 11개 항목
- 쓰기 영역 9개 항목

• 2학년

- 말하기 영역 8개 항목
- 듣기 영역 7개 항목
- 읽기 영역 11개 항목
- 쓰기 영역 9개 항목

• 3학년

- 말하기 영역 8개 항목

- 듣기 영역 7개 항목
- 읽기 영역 11개 항목
- 쓰기 영역 9개 항목

이러한 내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을 통한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이 라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도구로서의 언어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도구로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의 결과보다는 언어사용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인간의 언어사용 행위는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이다. 언어에 의한 의미의 재구성 과정은 표현과 이해의 두 가지 활동으로 나뉘는데 이 두 활동은 표현 또는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생각)와 이 의미를 담는 언어 사이를 연결짓는 정신 과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국어과 교육에서는 의미와 언어 사이의 연결 과정보다는 이미 구체화된 산물로서의 언어에만 관심을 보여 왔었다. 그러나 제5차 교육과정에 와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국어의 언어 학습 과정은 바로 사고(思考) 학습 과정이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단순히 도구로서의 언어관보다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찾아볼 수 있는 언어관은 이성적 언어관으로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국어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국어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언어’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나타난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의 모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 목표>

- 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학년 목표>

-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1학년)

-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히 사용하게 한다.(2학년)
-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을 이해하고, 국어를 정확히 사용하게 한다.(3학년)

<지도 내용>

- 1학년 : 품사의 분류와 특성, 단어의 짜임새, 단어의 의미관계, 비문의 구별, 문장성분의 분석, 문법 요소의 의미와 기능, 음운 변동의 주요 규칙 (여기까지는 1,2,3학년 동일), 유아의 언어 관찰
- 2학년 : 문장의 호응, 상황에 따른 언어의 적절한 사용
- 3학년 : 문장의 연결관계, 언어현상의 관찰로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이해

언어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에 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관이 국어과 교육의 한 영역을 꾸준히 차지하는 것은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을 때 올바른 국어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식적인 요소의 학습보다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언어 활동 참여와 자기의 언어 사용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생들의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국어과는 내용에 관한 교과라기보다는 언어 활동과 언어 활동 방법에 관한 교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엇에 대하여'보다는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도구교과로서의 국어과 성격을 보이면서,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목표로 규정하여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관과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바탕을 이루는 이성적 언어관이 반영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사용은 사고(의미)와 언어 사이를 연결짓는 지적 과정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언어와 사고를 연결짓는 활동을 강조하면서 언어와 의미를 연결짓는

과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사용기능이 단순히 기능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배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6.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가) 국어과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나) 목표 체계의 구조화, 다) 내용의 정선과 내적 구조화, 라) 지도와 평가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의 네 가지를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의 성격 규정, 국어 교육 내용의 체계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구체화,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료화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으며 처음으로 '국어과'의 성격 규정 항목이 설정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과는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키고 국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가지게 하며, 문학의 이해와 감상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로서,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고,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는 교과'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중학교 국어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국어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초적인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이다. 이를 위하여>

-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 신장의 기저가 되는 원리 및 절차에 관한 지식을 학습시키고, 실제적인 표현 및 이해 학습 활동을 통하여 언어사용 기능을 신장시킨다.
-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키고, 표현 및 이해 활동을 바르게 하도록 한다.
-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시켜, 문학 작품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이러한 국어과 성격 규정을 통해 국어과가 어떠한 교과인지를 명확히 풀이하여 국어과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국어과의 성격 규정을 보면 국어과는 언어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과로서 국민학교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취지하에 이루어진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의 모습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언어관은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과정, 즉 도구로서의 언어관이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서 의사교환 기능으로서의 표현 기능과 이해 기능을 길러주며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준다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목표부분에서 찾아보면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년 목표를 없애고 국어과 일반목표로 세 항목을 설정하였는데 언어사용 기능에 대한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생활을 바르게 하고, 국어와 민족의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 목표는 '말과 글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통하여 전달해야 할 '생각과 느낌'이 따로 있고, 그것을 날라다 주는 전달매체, 즉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언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이원론적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제는 국어교육을 기술교과와 흡사한 성격으로 나아가게 할 염려가 적지 않고 또 실제의 교육과정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²³⁾. 그리하여 이러한 언어관은 최근 들어서

23) 김승호(1994), "여러 가지 언어관에 비추어 본 국어교육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37.

너무 기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은 그 내용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내용은 내용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내용 체계를 보면 국어과는 언어사용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되, 국어 교과와 도구 교과적 성격을 강조하여 언어사용 기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언어, 문학과 동등하게 제시하였다.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말하기	1. 말하기의 본질 1) 말하기의 특성 2) 말하기의 기본 과정과 절차 3) 말하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말하기의 원리 1) 내용 선정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3) 표현과 전달의 여러 가지 원리	3. 말하기의 실제 1)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 2) 설득을 위한 말하기 3) 친교와 정서 표현을 위한 말하기 4) 공식적인 말하기의 태도와 습관
듣기	1. 듣기의 본질 1) 듣기의 특성 2) 정확한 듣기의 방법 3) 듣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듣기의 원리 1) 정보 확인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3) 평가와 감상의 여러 가지 원리	3. 듣기의 실제 1)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2) 설득하는 말 듣기 3) 친교와 정서 표현의 말 듣기 4) 공식적인 말 듣기의 태도와 습관
읽기	1. 읽기의 본질 1) 읽기의 특성 2) 정확한 읽기의 방법 3) 읽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읽기의 원리 1) 단어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이해의 여러 가지 원리 3) 평가와 감상의 여러 가지 원리	3. 읽기의 실제 1)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2) 설득하는 글 읽기 3) 친교와 정서 표현의 글 읽기 4) 정확한 읽기의 태도와 습관
쓰기	1. 쓰기의 본질 1) 쓰기의 특성 2) 쓰기의 기본 과정과 절차 3) 쓰기의 여러 가지 상황	2. 쓰기의 원리 1) 내용 선정의 여러 가지 원리 2) 내용 조직의 여러 가지 원리 3) 표현과 전달의 여러 가지 원리	3. 쓰기의 실제 1) 정보 전달을 위한 글 쓰기 2) 설득을 위한 글 쓰기 3) 친교와 정서 표현을 위한 글 쓰기 4) 정확한 글쓰기 태도와 습관

<학년별 내용>

; 각 학년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각 영역에 대해 ‘본질’과 ‘원리와 실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활동사항 등을 밝혀놓고 있다.

다음으로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두 번째 언어관은 언어를 분석대상으로 파악하는 이성적 언어관이다. 제1차부터 꾸준히 국어과의 한 영역을 차지한 부분으로 제6차에서도 변함없이 ‘언어’영역에서 이러한 언어관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목표와 내용에서 찾아보도록 하자.

<교과 목표>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내용 체계>

언어	1. 언어의 본질 1) 언어의 특성 2) 언어와 인간 3) 언어와 사회	2. 국어의 이해 1) 음운의 체계와 변동 2) 단어의 형성 3) 문장의 구성 요소와 기능 4) 단어의 의미 5) 문장과 이야기	3. 국어 사용의 실제 1) 표준어와 표준 발음 2) 맞춤법 3) 국어 순화 4)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태도와 습관

교과목표에 드러난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힘으로써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고 하여 국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었을 때 올바른 국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여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위해 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언어의 특성과, 국어의 특성, 그리고 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내용으로 흔히 얘기하는 문법적인 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성격을 규정함에 어떤 특정 이론에 구속받기보다는 국어과 교육의 본질 추구를 상위로 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국어과 교육의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과는 언어사용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영역, 언어 지식 영역, 문학 영역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언어사용 기능 영역으로서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은 각 언어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지식이나 원리와 함께 언어사용의 여러 유형별로 실제적인 언어사용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고, 언어 지식 영역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국어의 구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문학 영역은 문학의 이해와 작품 감상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언어사용 기능 영역에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관이, 언어 지식 영역에는 이성적 언어관이 반영되어 이제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여준 대표적인 언어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국어과 교육을 통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고, 올바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한 것이 이 시대의 국어과 교육의 특성이라 하겠다.

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

1997년에 공포되고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총론이 제시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틀 아래 다음 4가지를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둘째,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셋째, 교육내용의 사회적·개

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넷째, 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이다. 그 구성체계는 제6차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특히 제7차의 교육과정 중 국어과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변화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이다. 제7차 교육과정 자체가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면서 국어과도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지도 내용도 각 영역에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국어과 가장 기본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순서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순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언어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볼 때 듣기능력은 말하기보다 먼저 발달하는 언어 능력이면서 의사소통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말하기의 기초가 되고 사고의 촉진을 가져오는 언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듣기가 이제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많이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올바른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듣기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순서의 조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균형있는 지도의 필요성이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언어' 영역의 명칭이 '국어지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제6차에서의 '언어의 본질'이 '국어의 본질'로, '국어의 이해'가 '국어의 이해와 탐구'로 내용구성이 변화했으며 제6차에는 없었던 '국어에 대한 태도'부분을 집어넣어 정의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의 '국어사용의 실제'는 '국어의 규범과 적용'으로 바뀌었다.

24) 최현섭 외(2000), 전거서.

넷째, 교수·학습의 주체인 학습자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학습자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주려고 하고 있다. 곧 학습자의 능력수준을 연령 수준으로 고정해 놓고 그에 맞는 내용으로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여러 요인에 따라 기본 학습에 성공한 이와 실패한 이들 모두에게 각기 합당한 학습경험을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면서 의욕있게 시작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창의적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와 내용체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언어관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부분을 보자.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제시된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6차에서 보여주었던, 즉 목표를 '언어사용', '언어', '문학'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이 셋을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선 파악할 수 있는 언어관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다. 이는 제1차에서부터 제7차까지 꾸준히 국어교육의 한 영역을 차지해 온 사항으로 각 시기의 교육과정마다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이 바탕이 될 때 올바른 국어사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언어관은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이다. 즉 목표 제2항인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의 부분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데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를 통해 언어를 단순히 도구의 측면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하여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사고력 제고의 측면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어과 교육과정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너무 기능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사고'로서의 언어까지 배려하도록 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언어관의 모습은 그 내용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듣 기	1. 듣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2. 듣기의 원리 - 청각적 식별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3. 듣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듣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설득하는 말 듣기 - 정서 표현의 말 듣기 - 친교의 말 듣기		

영역	내용		
말하기	1. 말하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2. 말하기의 원리 - 발성과 발음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3. 말하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말하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설득하는 말 하기 - 정서 표현의 말 하기 - 친교의 말 하기		
읽기	1. 읽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2. 읽기의 원리 - 낱말 이해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3. 읽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읽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 설득하는 글 읽기 - 정서 표현의 글 읽기 - 친교의 글 읽기		
쓰기	1. 쓰기의 본질 - 필요성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2. 쓰기의 원리 - 글씨 쓰기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 - 고쳐쓰기 - 컴퓨터로 글 쓰기	3. 쓰기의 실제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쓰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설득하는 글 쓰기 - 정서 표현의 글 쓰기 - 친교의 글 쓰기		
국어지식	1. 국어의 본질 - 언어의 특성 - 국어의 특징 - 국어의 변천	2. 국어의 이해와 탐구 - 음운 - 낱말 - 어휘 - 문장 - 의미 - 담화	3. 국어에 대한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국어의 규범과 적용 - 표준어와 표준 발음 - 맞춤법 - 문법		

위의 내용체계를 살펴볼 때도 국어과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활동이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국어지식을 추가하고 있다. 그리고 문학 영역이 따로 설정되었는데, 이제까지의 분리된 모습에서 벗어나 목표에서 미리 보았듯이 서로 통합하여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학교과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 이해'하는 것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란 이념을 토대로 학습자의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그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신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구성,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과 확대, 목표(능력) 중심의 교육 내용 설정, 지역 및 학교의 자율 재량권 확대 등 이전까지의 교육과정과는 아주 다른 여러 양상을 보여 주면서 의욕을 갖고 시작한 교육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른 국어관/언어관 아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제대로 정립된 언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IV.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의 문제점과 지향점

이제까지 제Ⅲ장에서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제1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그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리해서 말하면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흐름을 살펴 볼 때 ①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²⁵⁾과 ②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 ③ 체계적 분석 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각 시기의 교육과정마다 공통적이며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제1·2차 교육과정에서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으나 제3차에서부터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그 기본 정신에만 깔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제1차부터 제7차까지 꾸준히 계속 국어교육의 중심적인 언어관을 차지해온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이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보다 더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중요하게 우리 교육과정의 언어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은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보았듯이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목표면, 내용면 모두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제5차 교육과정에서 '언어사용 기능의 신장'을 강조하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관이 그 이후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주된 언어관이 되었다. 언어를 의사소통수단으로 보면서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언어관은 최근에 와서 다분히 기능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25) 공·맹의 언어관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규일 1999), 전제서. 참조

비판²⁶⁾을 받고 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생활을 영위하고, 미래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국어발전과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기 위한 교과이다.

위의 국어교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다라도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가 중점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국어사용능력 신장'으로 설정한 것까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 능력, 즉 국어 능력이란 사고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국어 능력'이란 '국어사용 능력'과는 달리 기본적인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을 포함한다. 그런데 '국어사용 능력'이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동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고력이 등한시된 현상이 나타남을 우려하게 된다. 즉, 수단이나 도구로서 '언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원론적 구분으로 언어의 기능주의적 관점이 강하게 나타난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이고 도구적인 언어관에 대한 대안으로 김승호²⁷⁾는 '사고'로서의 언어관과 '세계'로서의 언어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어로서의 언어는 사고의 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언어를 문화 유산 또는 전통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국어과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깊이 있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26) 김대행(2000), 전제서.

김주환(1999),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9년 겨울호, 전국국어교사모임.

27) 김승호(1994) <여러 가지 언어관에 비추어 본 국어교육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또한 김대행²⁸⁾은 영국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예를 들어 자아 실현으로서의 언어, 사회성으로서의 언어, 도구로서의 언어, 소통으로서의 언어, 문화로서의 언어, 세계관으로서의 언어 등으로 언어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언어 교과가 다루어야 할 대상인 언어의 성격이 평면적이거나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며 복합적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처음으로 체계를 갖추고 시작한 제1차 교육과정의 시기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육과정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국어교과가 올바른 언어관 아래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교과는 우리의 국어인 한국어를 다루는 교과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국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된 뒤에 하나의 정립된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통하여 경험을 해석하며, 사고를 이해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은 학생들이 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국어교육은 어떤 언어관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교육목표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국어교육의 목적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남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대한 파악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해서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어 능력인 것이다. 단편화된 언어지식을 외우거나 정형화된 말하기나 글쓰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국어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

28) 김대행(1996)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2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하기는 어렵다. 국어는 그보다 더 복잡한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교육의 목표인 '국어능력의 향상'은 사고능력과 감성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내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를 다루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언어는 바로 사고다. 언어가 곧 사고라는 말은 내용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사고가 언어로 표현되고 언어를 통해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언어와 사고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국어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언어기능의 교육은 곧 사고기능의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제반 사고기능을 기르는 언어 기능 교육의 질은 또한 모든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언어관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창의적 국어사용능력의 신장'이라 하여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사고'로서의 언어에 관한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기능을 강조하는 언어관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국어관/언어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이 '기능'을 중시 여기는 언어관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능'과 '사고'를 모두 다 중시 여기는 통합적 언어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국어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일깨워 선인의 얼을 되새기고 국어를 아끼는 태도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언어/국어의 중요성을 알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국어관/언어관이 바탕이 된 교육과정이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와 사고는 분리될 수 없다. 언어 그 자체가 사고이고, 언어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본질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에서 언어와 사고를 이원론적

으로 구분하고 언어가 사고를 전달해 준다는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교육의 목표로 설정된 ‘국어사용 능력’의 신장은 이러한 기능적 요소와 함께 사고력 증진도 포함하는 내용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V. 결 론

이 연구에서 논자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언어관을 검토한 뒤,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고찰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언어관의 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올바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논의된 언어관을 검토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 도구관은 언어를 사고를 위한 도구로 파악한다. 이는 바로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의 도구로 여기는 관점과 상통하며, 언어와 사고가 서로 다르다는 이원론적 견해를 갖는 언어관이다.

언어 형성관은 언어를 도구로 여기는 견해와 대립되는 것으로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서 사고보다 언어를 더 중시 여기는 언어관이다. 이는 동양의 대표적인 언어관인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관'과도 상통하며, 언어가 작용하는 힘, 즉 말의 힘에 기반을 둔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앞의 두 언어관이 주로 언어와 사고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언어관이라면 **언어 행동관**은 언어를 하나의 행동이나 행위로 여기는 관점이다. 이는 소쉬르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최근에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언어관이다.

이성적 언어관은 서양의 대표적인 언어관으로 언어를 하나의 규범이요, 생활 원칙으로써 언어의 구조를 이성적 판단에 따라 철저히 해부하여 분석하려고 하는 언어관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법이 이에 해당하며 도구로서의 언어가 가능하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준과 규칙이 있어야 의사

소통이 가능하므로 언어 도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관이라 할 수 있다.

영물주의 언어관은 언어 신성관이라고도 하여 언어에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믿는 언어관이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공통된 언어관으로 언어가 주술적 매체로서 영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는 고대인들의 언어관이다. 이 언어관은 우리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존의 언어관의 검토를 통해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주의 교육학설에 충실한 교육과정으로 일상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1차 교육과정(1955)에는 교육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언어의 기능을 사회 형성의 기능, 인간 형성의 기능, 문화 전달의 기능으로 본다. 여기에는 말하기 학습 위주의 생활중심 교육을 강조하면서,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과 그리고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 체제나 목표면에서 제1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제2차 교육과정(1963)에 반영된 언어관도 제1차 교육과정과 다르지 않다. 즉 교육과정의 목표를 설명하면서 제시된 언어의 기능 부분에는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목표와 내용에는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과 분석 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나타나 있다.

국민교육헌장 이념을 바탕으로 유신 과업 수행과 새마을 운동을 반영한 속칭 유신 교육과정이라 불리는 제3차 교육과정(1973)의 특이한 사항은 언어의 사용을 사고의 차원으로까지 올려서 강조하는 언어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던 윤리·도덕적 수단으로서의 언어 형성관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과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만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언어의 사용을 통해서 사고 계발을 강조하면서 도구적 언어관의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4차 국어과 교육과정(1981)에서는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다루어졌던 언어 지식과 문학 영역을 국어과 지도 내용에 영역화시켜 지도 영역을 표현·이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언어, 문학으로 나누어 거기에 목표와 내용을 연결시켜 체계화시킨 교육과정의 시기로서 제3차에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도구적 언어관과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

제5차 국어과 교육과정(1987)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 생활을 보다 강조하였으며 언어사용의 결과보다는 언어사용의 과정을 중시하면서 언어사용기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언어 도구관과 분석 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제6차 국어과 교육과정(1992)은 교육과정 구조의 체계화, 목표 체계의 구조화, 내용의 정선 및 내적 구조화, 지도와 평가에 관한 구체화를 꾀한 교육과정으로 국어과 교육의 성격 규정, 국어과 교육 내용의 체계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의 명료화 등의 성과를 얻어 보다 발전된 교육과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언어관은 제5차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 도구관과 분석대상으로서의 이성적 언어관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1997)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사회적·개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국어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등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창의적 국어사용기능의 신장'을 궁극적 목표로 하여 지금까지의 언어관이 너무 기능주의로 흐르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그 내용체계를 보면 제6차와 마찬가지로 도구적 언어관과 이성적 언어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8월 1일에 제1차 교육과정이 나온 뒤로 1997년 12월 30일에 제7차 교육과정이 나오기까지 우리의 교육과정은 많은 발전

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어교과는 우리의 국어인 한국어를 다루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어를 통하여 경험을 해석하며, 사고를 이해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우리 국어교육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국어과 교육의 본체다.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든지 과거의 반성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하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언어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1차부터 제7차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언어관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앞으로 우리 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른 자리잡기 위해서는 올바른 언어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국어교육이 '기능'을 중시 여기는 언어관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능'과 '사고'를 모두 다 중시 여기는 통합적 언어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국어'는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일깨워 선인의 얼을 되새기고 국어를 아끼는 태도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어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어/언어의 중요성을 깨달아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과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국어관/언어관이 바탕이 된 교육과정이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자료>

- 문교부(1955),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45호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120호
문교부(1973),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령 제325호
문교부(1981),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442호
문교부(1982), 「중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연수자료)
문교부(1987),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고시 제87-7호
문교부(1987),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7-7호
문교부(1988), 「중학교 교육과정 연수자료」
교육부(1992),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교육부(1997),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단행본>

- 곽병선(1983), 「교육과정」, 배영사
김대행(2000),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재복(2000), 「통합교육과정」, 교육과학사
김재춘(1999),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학사
김종서(1983), 「교육과정과 수업」, 배영사
박영목 외(1999),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탐구」, 교학사
신동로(2000),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이용백(1975), 「국어 교육사 연구」, 신구문화사

정준섭(1996),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최현섭 외(2000),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함종규(1974),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숙명여대 출판부
 홍용선(1982), 「교육과정 신강」, 문음사

<논문>

김광해(1997), “21세기를 여는 국어정책”, 「한국인의 미래상」, 서울대학교 21세기문화 연구회 편, 집문당
 김대행(1996), “국어교육의 목표와 영역”, 「선청어문」 2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병완(1985),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김수엽(1999), “빠른 세상에 느린 교육-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지닌 문제점들”,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9년 가을호, 전국국어교사모임
 김승호(1994), “여러 가지 언어관에 비추어 본 국어교육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김주환(1999),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9년 겨울호, 전국국어교사모임
 김철수(1989),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의자(1974),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남식(1991),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도영(1992),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국어교육에의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규일(1999), “동양과 서양의 언어관 비교 연구(1)”, 「국어국문학」, 제125집, 국어국문학회

- 최규일(2000), “좋은 언어정책은 좋은 나라를 만든다”, 「국립국어연구원 10년사」, 국립국어연구원
- 홍옥표(1985), “국어과 교육과정의 사적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윤한(1998), “왜 제7차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 보다 못한가?”, 21세기를 위한 교육과정 철학,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전 방향, 열린교육학회 '98 춘계 학술발표대회, 서울대학교
- 황윤한(2000),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편), 「초등교육의 쟁점들」. 교육과학사



<Abstract>

The Research for language viewpoint Reflected on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h, Hyun-Sook

Korea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Choe, Kyu-Il

The viewpoi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been changed in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ince though and philosophy of the times determine languages,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en changed by the language viewpoint of the times. The language viewpoint is taken as an index leading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of each ti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research of language viewpoint should be performed to comprehend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ightly. This study examined the established research for language viewpoint. The language viewpoints on the first to the seventh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ere examined with the curriculu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 middle schoo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or the established language viewpoint and fo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1.

language viewpoints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are shown in the second chapter. The language viewpoint is a kind of view looking at a language.

It involves the instrumental viewpoint of language, the formative viewpoint of language, the actional viewpoint of language, the reasonal viewpoint of language, the spiritual being's viewpoint of language. This study showed the relations between these viewpoints of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third chapter showed how these various language viewpoints are reflected on the first to the seventh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first and the secon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flected the formative viewpoint of language for building ethics and morality, the instrumental viewpoint of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the reasonal viewpoint of language for analysis. The formative viewpoint of language by means of building ethics and morality has not revealed superficially from the third curriculum. But, the instrumental viewpoint of language for communication and the reasonal viewpoint of language for analysis has been the central viewpoints of language to the seventh curriculum. The main language viewpoint in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instrumental viewpoint of language for communication, which has the final aim of cultivating the language skills. But this viewpoint of language is criticised recently, because it lead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only to functionalism.

The obj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ried to find in the fourth chapter. A proper viewpoint of language is prerequisite to mak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run its right cours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en centered on the function. But, it should be changed to a new language

viewpoint attaching much importance to both function and thought. Remembering the spirit of our ancestors leaving a good cultural heritage, Korean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aimed to plant the mind caring about Korean language.

